

박사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2026.02.11.)

조선후기 궁중 연향 복식 정보의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연구
: 대비(大妃)를 위한 연향례를 중심으로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한 국 학 대 학 원

인문정보학전공 : 김 현 승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1
3. 연구 방법	1
II. 조선후기 궁중 연향 의례와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	1
1. 궁중 연향 의례	1
2. 대비(大妃)를 위한 연향	1
1) 『풍정도감의궤』	1
2) 『기사진표리진찬의궤』	1
3) 『(무자)진작의궤』	1
4) 『(무신)진찬의궤』	1
5) 『(정해)진찬의궤』	1
3. 연향 복식 관련 지식 정보의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	1
1) 연향 의례의 디지털 아카이브	1
(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
(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
(3) 국립고궁박물관	1
(4)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1
(5) 영국 국립도서관	1
2) 연향 복식 정보의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	1
(1) 국립국악원 국어사전	1
(2) 국립국악원 시소러스	1
III. 연향 참여자 복식 정보	1

1. 왕실 인원 복식	1
1) 왕, 왕세자	1
2) 대비, 왕비, 왕세자빈	1
3) 후궁	1
2. 외빈 · 내빈 복식	1
1) 외빈	1
2) 내빈	1
3. 여관 복식	1
1) 상궁	1
2) 차비	1
4. 공연자 복식	1
1) 악공	1
2) 여령	1
5. 기타 관원 복식	1
IV.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편찬을 위한 모델 설계	1
1. 시맨틱 데이터 모델링	1
2. 온톨로지 설계	1
1) 클래스 · 속성 설계	1
2) 관계어 설계	1
V.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1
1. 데이터 편찬	1
2.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1
VI.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활용	1
1. 시맨틱 데이터 큐레이션 1	1
2. 시맨틱 데이터 큐레이션 2	1
VII. 결론	1

참고문헌 1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조선시대의 복식 제도는 시대적 가치와 사상을 명확하게 반영하며, 엄격한 계급 질서를 기반으로 한 사회 통제의 기제로서 기능하였다. 특히, 궁중 복식은 단순한 기능적 의복의 영역을 넘어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복합적인 문화유산이며, 이는 당대 최고의 직조, 염색, 자수 기술을 비롯한 물질적 자원과 심미적 가치가 집약된 결정체로, 역사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복식의 사회적 기능과 가치는 왕실 의례 및 행사에 참여하는 인물들의 복장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 성리학적 이상 국가를 구현하고자 했던 조선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국가 의례 중 하나인 연향례(燕饗禮)에서는 다양한 신분 계층이 각자의 직위에 부합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한자리에 모여 당시의 사회 질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의례의 전 과정을 기록한 종합 보고서인 『의궤(儀軌)』는 당시의 사회, 문화, 기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적 사료가 되며, 행사 참여자들의 신분과 직위별 복식의 종류, 구성, 그리고 제작에 사용된 재료, 색상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복식사 연구의 자료로도 활용된다. 따라서 궁중 연향 의례와 의례 복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조선시대 궁중 문화와 의생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며, 이는 당대 복식 제도의 위상과 사회적 기능을 규명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궁중 연향은 영상 콘텐츠, 전시, 재현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의 역사적 실증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료에 근거한 정교한 고증 정보가 필수적이며, 특히 시각적 몰입감을 결정짓는 복식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초 자료들은 개별 학문 분야별로 단편적으로 산재해 있어 복합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궁중 연향 데이터 아카이브가 부재한 실정이다. 궁중 연향은 복식, 정재, 음악, 음식, 그리고 참여자 정보 등 여러 분야의 방대한 양의 자료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각 연구 결과물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여 상호 연결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관 자료들을 상호 연결하여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선후기 궁중 연향 참여자들의 복식 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편찬하고, 파편화된 정보를 연결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복식사 연구 방법의 한계는 궁중 연향과 같은 복합적인 문화유산을 다룰 때 명확히 드러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의 파편화 및 상호 연결성 부재이다. 궁중 연향 복식은 단순한 의복 정보 외에도 그 복식을 착용한 연향의 참여자, 연향에 사용된 음악, 정재, 연향이 열린 장소 등 여러 학문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전통적인 연구 방식은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의궤』와 같은 1차 사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물을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각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가 개별적으로 존재할 뿐, 상호 관계가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통합적인 지식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고, 복합적인 상황을 한데 엮어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통합적 고증의 비효율성이다. 드라마, 영화, 게임 등 고증이 필수적인 문화 콘텐츠 제작 시, 제작자는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분야의 연구 결과물들을 수작업으로 취합하고 교차 검증해야 하므로, 시간과 재정적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

셋째, 디지털 기술과의 연계 제약이다. 전통 연구의 결과물은 주로 텍스트 기반의 논문, 보고서, 도서 형태로 존재하여 기존 연구 자료는 기계 판독성(Machine Readability)이 낮다. 이는 통합적인 지식 체계 구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연구 방법론에 부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연구를 시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 조선후기 궁중 연향 복식의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전통적인 복식사 연구 방법론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연구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궁중 연향 참여자들의 복식 자료를 종합적으로 망라하는 아카이브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현재는 복식 중심의 아카이브 구현에 초점을 맞추지만, 궁극적으로는 궁중 연향의 복합적인 문화 요소 전체로 데이터가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한다.

첫째,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연향 『의궤』의 기술 체계와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다. 그 속에서 연향 참여자가 착용한

복장 및 복식 요소와 관련 문맥적 요소(인물, 장소, 정재 등)를 추출하고 이들 요소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시맨틱 데이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구축된 시맨틱 아카이브가 단순한 자료 보관소를 넘어, 미래 시대의 전통문화 연구 방법론을 제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복식사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 질문을 탐색하고 데이터 기반 연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학제 간 협업을 통한 학술적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셋째, 궁중 연향 복식 문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 접근성을 확보한다. 이는 전통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부응하며, 손쉽게 정보를 탐색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이 아카이브는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고증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구축된 정형 데이터는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기능함으로써 한복을 재현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하는 등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창의적 활용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범위

현존하는 진연 관련 의궤 중 조선후기 연향의 주인공이 대비(또는 왕의 생모)¹⁾였던 사례는 총 10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인목왕후, 순원왕후, 신정왕후, 명헌태후를 비롯하여, 왕의 모친으로서 연향의 주인공이 된 혜경궁 홍씨 등이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연구의 효율성과 데이터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연향 의궤인 『풍정도감의궤』를 기준으로 1630년부터 대한제국이 선포되기 이전까지로 한정한다. 이는 조선

1) 혜경궁(惠慶宮)은 아들 정조(正祖)가 효장세자(孝章世子)의 후사가 되어 왕위에 오른 것이므로 계속 빈(嬪)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연향 당시 대비(太妃)의 신분은 아니었으나, 국왕의 생모로서 그에 준하는 의례적 예우를 향유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대비를 위한 연향의 범주에 혜경궁의 사례를 포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왕실의 전통적인 예법과 복식 제도가 일관성을 유지하며 전승된 시기를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데이터 모델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시기적 한정 내에서 본고는 연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각 주인공별 상징성을 갖춘 연향 5건을 최종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선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주인공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1건씩 선정하여 인물별 복식 특성을 고루 반영하였다. 다만 혜경궁 홍씨를 위한 1795년(정조 19) ‘을묘년 진찬’은 도성을 벗어나 화성 행궁에서 거행된 예외적인 사례임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보편적 확보를 위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신정왕후를 위해 설행된 5건의 연향 중에서는 의례의 규모가 가장 성대하고 기록의 완성도가 높은 말년의 ‘정해년(1887) 진찬’을 선정하였다. 셋째, 복식 정보의 다채로움을 확보하기 위해 순원왕후와 신정왕후를 공동 주인공으로 모시며 후궁이 왕비에 준하는 예우로 참여했던 ‘무신년(1848) 진찬’을 대상에 포함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확정된 본 연구의 대상 의궤 5건은 1630년(인조 8) 『풍정도감의궤』, 1809년(순조 9) 『(기사)진표리진찬의궤』, 1828년(순조 28) 『(무자)진작의궤』, 1848년(헌종 14) 『(무신)진찬의궤』, 1887년(고종 24) 『(정해)진찬의궤』이다. 본 연구는 이 5건의 연향 의궤를 중심으로 각 연향의 참여자들이 착용했던 복식 정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 정보 간의 유기적 관계를 명시하는 시맨틱 데이터 모델링을 설계하고자 한다.

<표 1> 연구 대상 궁중 연향 의궤

의궤	설행 연도	연향 목적
豊呈都監儀軌 풍정도감의궤	1630년 (인조 8)	인목왕후의 만수무강 기원
己巳進表裏進饌儀軌 기사진표리진찬의궤	1809년 (순조 9)	혜경궁의 관례 60주년
(戊子)進爵儀軌 (무자)진작의궤	1828년 (순조 28)	순원왕후의 40세
(戊申)進饌儀軌 (무신)진찬의궤	1848년 (헌종 14)	순원왕후의 육순과 신정왕후의 망오
(丁亥)進饌儀軌 (정해)진찬의궤	1887년 (고종 24)	신정왕후의 팔순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조선후기 궁중 연향 복식에 관한 지식 정보를 아카이빙하기 위한 시맨틱 데이터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먼저, 시맨틱 데이터 편찬의 핵심 대상이 될 복식 고증 및 자료의 종합적인 탐색을 진행한다. 연향에 참여하는 인물이 착용했던 복식은 단순한 의궤 원문 검토를 넘어선 복합적인 자료의 교차 검증을 필요로 한다. 복식 고증을 위한 기초 자료는 궁중 연향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한 의궤 원문을 중심으로 수집한다. 조선시대 신분별 복식 제도의 규정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통해 확인하며, 왕실 인원의 세부 복식 정보는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 그리고 『상방정례(尙方正例)』 등을 참고한다. 대한제국기 왕실 복식 규정에 대해서는 『대한예전(大韓禮典)』을 참고하여 시대별 변화 양상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문헌 자료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복식의 실제 색채, 문양, 착용 시 형태 등 시각적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회화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다. 아울러 각 복식 아이템의 구조적 이해와 실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유물 자료를 함께 고찰한다. 이처럼 과거 문헌 자료와 유물, 회화 자료를 포괄하는 고증 과정을 통해 확보된 근거 자료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고증 과정을 거쳐 복원 및 재현된 복식의 모습까지도 함께 아카이빙하여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문헌 : 연향 의궤 원문, 왕실 인원 복식을 위해 필요한 문헌들, 법전, 복식 제도를 규정한 문헌들.
- 회화 자료 : 궁중기록화, 초상화(어진 포함), 풍속화
- 사진 자료 : 근현대의 흑백 사진, 연구를 통해 고증 복원한 실물 사진.
- 유물 자료 : 각 박물관 자원, 개인 소장 자료
- 학술적 근거 자료 : 의궤 · 복식사 · 정재사 · 연향 관련 연구자료, 단행본, 논문, 보고서
- 웹자원 : 2D 일러스트, 3D 어셋

복식 정보에 대한 탐색을 완료한 후에는 문맥 요소(Contextual Elements)로서 복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자원에 대해 탐색한다. 이는 인물, 장소, 정재, 음악

등 복식 적용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후 후술할 온톨로지 설계에 맞추어 각 자료를 분류하고,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데이터를 편찬한다. 이때 개별 데이터의 정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최종적으로, 이처럼 다층적으로 수집 및 분석, 그리고 편찬된 자료를 기반으로 궁중 연향 복식 관련 개체(Node)와 속성(Property)을 정의하고, 온톨로지(Ontology) 기반의 시맨틱 데이터 모델을 구축한다.

II. 조선후기 궁중 연향 의례와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

1. 조선후기 궁중 연향 의례

조선은 유학(儒學)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예(禮)와 악(樂)으로써 성리학적 이상국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왕실에서는 이러한 예악(禮樂) 정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의 전례와 법도를 정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궁중 연향(宴享)은 단순한 잔치를 넘어 국가의 위엄을 세우고 화합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통치 기제로 작동하였다. 궁중 연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1474년(성종 5) 편찬된 예법서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조선의 근간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1485년부터 시행)에 명시되어 전례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먼저 『국조오례의』에서는 연향 의례를 세부 의주(儀註)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월 초하루와 동지에 왕이 백관과 회례하는 ‘정조회(正至會儀)’, 왕비가 명부와 행하는 ‘중궁정조회명부의(中宮正至會命婦儀)’를 비롯하여, 경로 효친의 사상을 담은 ‘양로연의(養老宴儀)’ 및 ‘중궁양로연의(中宮養老宴儀)’가 실려 있다. 또한 제사 후의 ‘음복연의(飲福宴儀)’, 중국 및 이웃 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조정사의(宴朝廷使儀)’와 ‘연인국사의(宴隣國使儀)’ 등을 통해 대내적인 화합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외교 의례로서의 연향 규범을 정립하였다.²⁾

법전인 『경국대전』 역시 연향의 시행 주체와 시기를 규정하여 이를 법제화하였다. 단오와 추석, 행행(行幸) 및 강무(講武) 후, 그리고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생신 등에 의정부와 육조에서 연향을 올리도록 하였으며, 충훈부, 종친부, 의빈부, 충익부 등 각 관서별 시행 횟수와 시기를 명시하였다. 특히 매년 정조(正朝)와 동지에 거행되는 회례연(會禮宴)에는 왕세자와 문무백관이, 내전에서 베풀어지는 연향에는 왕세자빈과 내외명부가 모두 참석하도록 하여 왕실 구성원과 신료 간의 위계와 결속을 공고히 하도록 하였고, 또한 매해 늦가을에는 양로연을 행하도록 하였다.³⁾

이처럼 국가의 핵심 전례서와 법전에 연향 의례를 상세히 규정하고 성문화한 것

2) 『國朝五禮儀』 卷3 「嘉禮」 ‘正至會儀’; ‘中宮正至會命婦儀’; 卷4 「嘉禮」 ‘養老宴儀’; ‘中宮養老宴儀’; ‘飲福宴儀’; 卷5 「嘉禮」 ‘宴朝廷使儀’; ‘宴隣國使儀’.

3) 經國大典 卷3 「禮典」 ‘宴享’ “端午秋夕行幸講武後議政府六曹進宴【王世子及嬪生辰同】○ 每歲四仲朔忠勳府進宴 … (중략) … ○ 每歲二度宗親府儀賓府進宴 ○ 每歲一度忠翊府進宴 ○ 每歲正朝或冬至行會禮宴【王世子及文武官竝赴宴 王妃宴于內殿王世子嬪及內外命婦竝赴】○ 每歲季秋行養老宴【大小員人年八十以上者赴宴 婦人則王妃宴于內殿 外則守令別設內外廳行宴】”.

은, 연향이 단순히 유흥을 즐기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조선이 표방하는 유교적 이상 국가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정치·문화적 장치였음을 시사한다. 즉, 『국조오례의』와 『경국대전』에 명시된 연향 규정은 국가 질서의 확립과 예치(禮治)의 실현이라는 통치 철학을 담아내는 중요한 제도적 틀로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연향이 종료된 후에는 국가의 여타 주요 의례와 마찬가지로, 행사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 후대 연구와 전례의 규범으로 삼기 위한 ‘의궤(儀軌)’를 편찬하였다. 연향 의궤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임시 기구인 도감(都監)이나 소(所)의 설치부터 구체적인 의식 절차, 소요 물품 및 인력, 그리고 행사를 마친 후 공로가 있는 관련자들에게 상을 내리는 시상 내용까지 총망라하는 일종의 종합 결과 보고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연향 관련 의궤는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총 21종이 현존하고 있다. 이 중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베풀어진 사객연(使客宴) 관련 의궤 2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19종은 모두 왕실 내부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한 진연(進宴) 관련 의궤에 해당한다.⁴⁾

이처럼 방대한 분량으로 전해지는 연향 의궤는 당시의 의례 문화뿐만 아니라 복식, 음식, 기물 등 왕실의 생활 문화를 복원하는 데 있어 독보적인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현존하는 연향 관련 의궤의 목록과 소장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조선후기 · 대한제국기 궁중 연향 의궤

No.	의궤	실행 연도	연향 목적	소장처
1	豊呈都監儀軌 풍정도감의궤	1630년 (인조 8)	인목왕후의 만수무강 기원	국립중앙박물관
2	(己亥)進宴儀軌 (기해)진연의궤	1719년 (숙종 45)	숙종의 기로소 입소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	(甲子)進宴儀軌 (갑자)진연의궤	1744년 (영조 20)	영조의 기로소 입소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4	(乙酉)受爵儀軌 (을유)수작의궤	1765년 (영조 41)	영조 72세 즉위 40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4) 진연 관련 의궤를 19종으로 분류한 것은 1795년(정조 19) 혜경궁 홍씨의 관례 60주년을 경축하며 거행된 행사를 기록한 『기사진표리진찬의궤』와 『혜경궁진찬소의궤』를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종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5	園幸乙卯整理儀軌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년 (정조 19)	혜경궁의 회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6	己巳進表裏進饌儀軌 기사진표리진찬의궤	1809년 (순조 9)	혜경궁의 관례 60주년	영국국립도서관
7	惠慶宮進饌所儀軌 혜경궁진찬소의궤	1809년 (순조 9)	혜경궁의 관례 60주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8	慈慶殿進爵整禮儀軌 자경전진작정례의궤	1827년 (순조 27)	원손의 탄생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9	(戊子)進爵儀軌 (무자)진작의궤	1828년 (순조 28)	순원왕후 40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10	(己丑)進饌儀軌 (기축)진찬의궤	1829년 (순조 29)	순조 40세 즉위 30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1	(戊申)進饌儀軌 (무신)진찬의궤	1848년 (현종 14)	순원왕후의 육순과 신정왕후 의 망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12	(戊辰)進饌儀軌 (무진)진찬의궤	1868년 (고종 5)	신정왕후의 회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3	(癸酉)進爵儀軌 (계유)진작의궤	1873년 (고종 10)	신정왕후의 대비책봉 40주 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4	(丁丑)進饌儀軌 (정축)진찬의궤	1877년 (고종 14)	신정왕후의 칠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15	(丁亥)進饌儀軌 (정해)진찬의궤	1887년 (고종 24)	신정왕후의 팔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16	(壬辰)進饌儀軌 (임진)진찬의궤	1892년 (고종 29)	고종 41세 즉위 30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17	(辛丑)進饌儀軌 (신축)진찬의궤	1901년 (광무 5)	명헌태후 71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18	(辛丑)進宴儀軌 (신축)진연의궤	1901년 (고종 38)	고종 50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19	(壬寅4月)進宴儀軌 (임인4월)진연의궤	1902년 (고종 39)	고종의 기로소 입소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20	(壬寅11月)進宴儀軌 (임인11월)진연의궤	1902년 (고종 39)	고종의 망육과 즉위 40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2. 대비(大妃)를 위한 연향

궁중 연향은 설행 목적에 따라 회례연(會禮宴), 양로연(養老宴), 진연(進宴), 음복연(飲福宴), 사객연(使客宴)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사객연은 외빈을 접대하는 빈례(賓禮)에 속하고, 진연을 비롯한 여타 연향은 왕실의 기쁨을 나누는 가례(嘉禮)의 범주에 포함된다. 본 연구는 대비(大妃)와 왕, 왕비를 위해 거행된 ‘진연’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그 중에서도 대비를 위한 연향례에 집중하고자 한다.

왕실의 연향(宴享)⁵⁾을 지칭하는 용어는 시대와 성격에 따라 진풍정(進豊呈), 진연(進宴), 진찬(進饌), 진작(進爵)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풍정’은 음악과 정재(呈才)가 수반됨을 의미하며, ‘진연’은 연회 자체를 올림을, ‘진찬’은 음식을 올림을, ‘진작’은 술잔을 올림을 뜻한다. 비록 명칭상에는 세부적인 강조점의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왕실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의례라는 점에서 공통된 함의를 지닌다.

연향은 참여 대상에 따라 외연(外宴)과 내연(內宴)으로 구분되는데, 외연이 정치를 주도하는 왕과 신료 중심의 공적인 행사였다면, 내연은 대비, 왕비, 왕세자빈을 비롯한 내·외명부뿐만 아니라 왕, 왕세자, 종친, 의빈, 척신 등 왕실의 남성 구성원과 친인척까지 두루 참여하여 보다 포괄적인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⁶⁾ 본 연구는 복식 정보의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바, 신분과 성별에 따른 복

5) 본고에서 특정 연향을 지칭할 때를 제외하고 조선 왕실의 잔치를 표현할 때 ‘연향’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경국대전』의 조문에 근거한 것이다. -『經國大典』卷1「吏典」‘京官職’：“正二品衙門，六曹，禮曹掌禮樂祭祀宴享朝聘學校科擧之政 … (중략) … 典享司掌宴享祭祀牲豆飲膳醫藥等事”.

6) 김종수는 진연에서 외연과 내연의 참석자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하였다. - 김종수, 「조선 궁궐의 잔치, 예와 즐거움이 어우러지다」, 국립고궁박물관 엮음, 『조선 궁중의 잔치, 연향』, 글항아리, 2013, 30~31쪽.;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의 본질과 여악제도의 변천』, 민속원, 2018, 61~71쪽.

식의 다양성을 가장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는 내연을 중심 자원으로 설정하였다.

현전하는 진연 관련 의궤 중 조선 후기 연향의 주인공이 대비 또는 왕의 생모였던 사례는 총 10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인목왕후, 순원왕후, 신정왕후, 명헌태후를 비롯하여, 국왕의 모친으로서 주인공이 된 혜경궁 홍씨 등이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시대별 · 인물별 복식 정보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조선 후기 연향 의궤 중 『풍정도감의궤』(1630), 『기사진표리진찬의궤』(1809), 『(무자)진작의궤』(1828), 『(무신)진찬의궤』(1848), 『(정해)진찬의궤』(1887) 등 총 5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의궤의 개요와 복식 사료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풍정도감의궤』

『풍정도감의궤』는 1630년(인조 8) 3월, 인조가 대비인 인목왕후(仁穆王后)의 47세를 경축하고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인경궁(仁慶宮)에서 설행한 진풍정(進豊呈)의 전 과정을 기록한 사료이다. 이는 현존하는 국내 최고(最古)의 연향 의궤이자, '진풍정'이라는 명칭으로 거행된 의례를 다룬 유일한 의궤로서 기록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본 의궤는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당시 강화도 외규장각에서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되었던 전적 중 하나이다.⁷⁾ 장기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2011년 영구 대여 형식으로 반환되어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서비스를 통해 원문 열람이 가능해짐으로써⁸⁾ 관련 연구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의궤의 체제는 후대의 의궤와 달리 별도의 목차 없이 본문이 시작되는 초기 양식을 보여준다. 서두에는 왕의 명령을 전하는 전교(傳敎)를 비롯하여 결재 문서인 계하(啓下), 왕에게 여쭙는 말인 계사(啓事),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보내는 공문인 감결(甘結) 등 의례 준비를 위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공연 관련 업무인 정재색(呈才色), 연상(宴賞)과 찬안(饌案)을 준비한 찬선색(饌膳色), 행사장 조성 및 물품 배치에 대한 배설색(排設色)의 기록이 차례로 나타나며, 의식의 세부 절차를 명시한 진풍정의(進豊呈儀)가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부록으로 1611년과 1624년에 설행된 진풍정의 의주(儀註)가 첨부되어 있어 전례의 계승 양상

7) 이해구, 「풍정도감의궤 해제」, 국립국악원 편,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13집』, 국립국악원, 1983, 3~8쪽.

8) 「외규장각 의궤,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시작」,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2012.01.31. (<https://www.museum.go.kr/MUSEUM/contents/M0701040000.do?schM=view&catCustomType=post&catId=93&arcId=4004>)

을 보여준다.

복식 사료로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본 의궤는 후대 의궤들에 비해 기록 방식이 비교적 간략한 편이다. 특히 연향의 장면을 묘사한 도병(圖屏)이나 반차도(班次圖), 정재 및 복식의 형태를 그린 도설(圖說) 자료가 전무하여, 시각적 정보보다는 문헌 기록에 의존하여 당시의 복색을 추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 내의 복식 관련 기록은 당시 왕실 복식 체계의 일단을 보여준다. 「진풍정의」에 따르면 왕과 왕세자는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를, 대왕대비와 왕비는 수식(首飾)과 예복(禮服)을 갖추었으며, 왕세자빈과 외정명부(外庭命婦) 역시 예복을 착용하고 연향에 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재색」 기록에는 기녀(妓女)와 동기(童妓)가 사용하는 수화(首花), 보로(甫老), 수사지(首沙只) 등의 장식과 더불어 처용무(處容舞)에 필요한 가면 및 채색단의(彩色緞衣), 당혜(唐鞋)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수록된 9종의 정재 종목은 당시 공연 복식을 고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2) 『기사진표리진찬의궤』

내용

3) 『(무자)진작의궤』

내용

4) 『(무신)진찬의궤』

무신년 진찬의궤의 의주에서는 3월 17일의 통명전진찬과 통명전야진찬 및 3월 19일의 통명전익일회작과 통명전익일야연의 의식절차와 함께 올려진 정재, 악장이 기록되어 있다.

5) 『(정해)진찬의궤』

가나다라

3. 연향 복식 관련 지식 정보의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연향 복식의 시맨틱 데이터 모델 설계 및 편찬을 목적으로 하는바, 연구 대상 자료의 접근성과 정밀한 데이터 추출을 위해 웹을 통해 원문 열람이 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를 분석 범위로 한정하였다. 현재 국내의 주요 보존 기관에서는 소장 중인 연향 의궤를 디지털화하여 고해상도 이미지와 전용 뷰어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별 소장 현황과 서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연향 의궤의 디지털 아카이브

(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가장 방대한 양의 연향 의궤 디지털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무자)진작의궤』(6건), 『(무신)진찬의궤』(6건), 『(정해)진찬의궤』(24건)를 포함하여 다수의 복본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규장각 원문검색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용 뷰어로 원색 이미지를 상세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의궤 목록

1828년(순조 28) 『(무자)진작의궤』	
청구기호	Url
奎14363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363_00
奎14364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364_00
奎14365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365_00
奎14366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366_00
가람古642.4-J 562ja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G43285_00

가람古642.4-J 562j-v.1-2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G43286_00
1848년(헌종 14) 『(무신)진찬의궤』	
청구기호	Url
奎14371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371_00
奎14372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372_00
奎14373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373_00
奎25027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25027_00
奎14516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516_00
가람古642.4-J 562m-v.1-3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G43288_00
1887년(고종 24) 『(정해)진찬의궤』	
청구기호	Url
奎14404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04_00
奎14405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05_00
奎14406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06_00
奎14407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07_00
奎14408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08_00
奎14409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09_00
奎14410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10_00
奎14411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11_00
奎14412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12_00
奎14413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13_00
奎14414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14_00
奎14415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15_00
奎14416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16_00
奎14417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17_00
奎14418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18_00

奎14419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19_00
奎14420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20_00
奎14421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21_00
奎14422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22_00
奎14423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23_00
奎14424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24_00
奎14425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25_00
奎14426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26_00
奎14427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4427_00
가람古642.4-J 562b-v.1-3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G43282_00

(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역시 소장 중인 연향 의궤를 디지털 아카이브화하여 제공 중이다. 장서각은 『(무자)진작의궤』(2건), 『(무신)진찬의궤』(1건), 『(정해)진찬의궤』(2건)에 대해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를 웹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표 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의궤 목록

1828년(순조 28) 『(무자)진작의궤』	
청구기호	Url
K2-2859	https://jsg.aks.ac.kr/dir/view?catePath=&dataId=JSG_K2-2859
K2-2860	https://jsg.aks.ac.kr/dir/view?catePath=&dataId=JSG_K2-2860
1848년(현종 14) 『(무신)진찬의궤』	
청구기호	Url
K2-2874	https://jsg.aks.ac.kr/dir/view?dataId=JSG_K2-2874
1890년(고종 27) 『(정해)진찬의궤』	

청구기호	Url
K2-2876	https://jsg.aks.ac.kr/dir/view?catePath=&dataId=JSG_K2-2876
K2-2877	https://jsg.aks.ac.kr/dir/view?catePath=&dataId=JSG_K2-2877

(3)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은 왕실 유물 전문 보관 기관으로서 소장 중인 의궤 3건(무자진작, 현종무신진찬, 고종정해진찬)에 대해 각각 1건씩의 디지털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검색 서비스를 통해 원문 열람 기능을 제공하며, 박물관이 보유한 다른 왕실 유물 정보와 연계하여 사료적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 5>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의궤 목록

1828년(순조 28) 『(무자)진작의궤』	
유물번호	Url
고궁1824	https://www.gogung.go.kr/gogung/pgm/cultureHeritage/view1.do?cltUrHrtgId=63&menuNo=800068
1848년(현종 14) 『(무신)진찬의궤』	
유물번호	Url
고궁2773	https://www.gogung.go.kr/gogung/pgm/cultureHeritage/view1.do?cltUrHrtgId=99&menuNo=800068
1890년(고종 27) 『(정해)진찬의궤』	
유물번호	Url
고궁2759	https://www.gogung.go.kr/gogung/pgm/cultureHeritage/view1.do?cltUrHrtgId=81&menuNo=800068

(4) 국립중앙박물관 : 외규장각 의궤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규장각 의궤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풍정도감의궤』(1건)를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외규장각 의궤 전용 웹사이트는 의궤의 화소(畫素)를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뷰어뿐만 아니라, 관련 해제와 도설(圖說)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표 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의궤 목록

1630년(인조 8) 『풍정도감의궤』	
청구기호	Url
외규001	https://www.museum.go.kr/uigwe/content/contentView1?id=uig_001

(5) 영국 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

국의 소장 자원인 영국 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의 경우, 소장 중인 『기사진표리진찬의궤』(Or 7458) 1건에 대해 디지털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해당 자원은 도서관 측의 '온라인 자료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승인을 거쳐 디지털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표 7> 영국 국립도서관 소장 의궤 목록

1809년(순조 9) 『기사진표리진찬의궤』	
청구기호	Url
Or 7458 ⁹⁾	http://www.bl.uk/manuscripts/Viewer.aspx?ref=or_7458_f001r

이처럼 주요 소장 기관들이 구축한 디지털 아카이브는 종이 형태의 사료가 가진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연향 복식 대상 자원의 조사와 시맨틱 요소 추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기초 자원이 된다.

9) 국립 영국도서관(The British Library)에서 소장하고 있는 『己巳進表裏進饌儀軌(Kisa chin p'yori chinch'an üigwe)』(소장번호: Or 7458)의 디지털 이미지는 '온라인 자료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뒤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s://searcharchives.bl.uk/catalog/032-001608369>)

Ⅲ. 조선후기 궁중 연향 참여자 복식 정보

조선 후기 궁중 연향은 왕실의 위엄을 보이고 화합을 도모하는 국가적 의례로서, 참여자의 신분과 역할에 따라 엄격한 복식 규정이 적용되었다. 연향 의궤에 기록된 참여자의 복식 정보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연향의 주인공인 대비를 비롯하여 행사를 주최한 국왕, 왕비 등 왕실 인원이며, 둘째는 연향에 초대된 내·외빈이다. 셋째는 의식의 원활한 진행을 보좌하는 여관(女官) 및 실무 인력이며, 마지막으로 연향의 예술적 증위를 풍성하게 했던 악공(樂工)과 정재 여령(女伶) 및 무동(舞童)이 이에 해당한다.

본 장에서 이들의 복장 규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복식 정보의 시맨틱 데이터 모델링을 설계하고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의궤 내 복식 기록은 대상의 위계에 따라 상세한 기술과 간략한 언급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궤의 원문 텍스트를 정밀하게 탐색하되, 문자 정보만으로는 데이터화하기 어려운 복식의 구체적인 형태와 색상, 재질 등에 대해서는 동시대의 타 문헌 및 회화 사료, 현전하는 유물 자료 등을 교차 분석하여 그 실체를 추론할 것이다.

이러한 추론 과정은 단순히 개별 복식의 외형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데이터 선정과 각 정보 간의 관계성을 정의하는 기초 작업이 된다. 즉, 문헌과 사료를 통해 검증된 복식 정보를 바탕으로 개체(Entity)와 속성(Property)을 추출하고, 인물·의례·복식 간의 유기적인 연결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입체적인 탐색이 가능한 지식 정보 체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왕실 인원 복식

1) 왕, 왕세자

왕의 복식은 연향 의궤에서 ‘익선관’, ‘곤룡포’라는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고, 궁중 기록화에서는 그 모습을 생략하고 있어 의궤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모습을 알기 어렵다.

(1) 의궤

『풍정도감의궤』에서 왕을 ‘전하(殿下)’라고 지칭하고 있다.

『(무신)진찬의궤』 권1 「의주」 ‘통명전진찬의’에서 왕은 익선관, 곤룡포를 착용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통명전야진찬의’와 ‘통명전익일야연의’에서는 왕이 그대로 삽화[仍插花]하고 나온다고 하여 연향을 올리는 동안 익선관에 꽃을 꽂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의궤에 기록된 의식절차에 따른 왕 · 왕세자의 복식

의궤	의식	착장자	복식
『풍정도감의궤』	진풍정의	전하	익선관, 곤룡포
		왕세자	익선관, 곤룡포
『(무신)진찬의궤』	통명전진찬의	전하	익선관, 곤룡포
	통명전야진찬의	전하	익선관, 곤룡포, 삽화
	통명전익일회작의	전하	익선관, 곤룡포
	통명전익일야연의	전하	익선관, 곤룡포, 삽화

(2) 문헌

익선관과 곤룡포는 왕과 왕세자의 상복으로 국조속오례의보서례에 그 제도에 대해 참조할 수 있다. 익선관, 곤룡포, 옥대, 흑피화

영조 28년 찬정된 상방정례에는 진연시 착용하는 대전, 세자궁의 의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대전 진연시 의대. 세자궁 진연시 의대

(3) 회화

<영조 어진>

(4) 유물

2) 대비, 왕비, 왕세자빈

(1) 의궤

풍정도감의궤 대왕대비 禮服加首飾, 왕비 예복가수식, 왕세자빈 예복
 (무신)진찬의궤 의주 통명전진찬의 대왕대비전 가수식구적의 왕비 가수식구적의
 (무신)진찬의궤 의주 통명전야진찬의 대왕대비전 가수식구적의

<표 9> 의궤에 기록된 의식절차에 따른 대비 · 왕비 · 왕세자빈의 복식

의궤	의식	착장자	복식
『풍정도감의궤』	진풍정의	대왕대비	首飾, 禮服
		왕비	首飾, 禮服
		왕세자빈	禮服
『(무신)진찬의궤』	통명전진찬의	대왕대비전	首飾, 翟衣
		왕비	首飾, 翟衣
	통명전야진찬의	대왕대비전	수식, 적의
	통명전익일회작의		
	통명전익일야연의		

1630년 진풍정은 오례의 왕비전조하내연의를 가감하여 의주를 마련한 내용이 확인된다. ‘왕비구적의가수식’, 내외명부 ‘예복’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인목왕후의 흥례 기록인 인목왕후빈전도감의궤에 인목왕후의 적의가 기록되어 있는데, 생전에 착용했던 의대류 중에 자적색 적의 한 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진풍정에서 인목대비는 수식을 가하고, 자적색 적의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688년 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에 적의 일습 구성과 간략한 그림체이지만 도설 자

료가 남아 있어 당시 적의 제도를 짐작할 수 있다.

(2) 문헌

국조속오례의보서례에 왕비 예복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상방정례에는 진연시 대왕대비, 왕비, 세자빈의 적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3) 후궁

(1) 의궤

(무신)진찬의궤 의주 통명전진찬의 경빈 수식을 가하고 명복을 갖춘다 加首飾具命服

<표 10> 의궤에 기록된 의식절차에 따른 후궁의 복식

의궤	의식	작장자	복식
『(무신)진찬의궤』	통명전진찬의	慶賓	首飾, 命服
	통명전야진찬의		
	통명전익일회작의		
	통명전익일야연의		

(2) 문헌

경빈 김씨의 정미가례시일기

2. 외빈 · 내빈복식

1) 외빈

(1) 의궤

풍정도감의궤: 언급 없음.

무신년 진찬의궤 의주 통명전진찬의 조관 흑단령, 유생과 동몽은 청금복

무신년 진찬의궤 의주 통명전익일야연의 당상관 낭청 仍具其服(그 복장 그대로)

무신진찬의궤 권1

<표 11> 의궤에 기록된 의식절차에 따른 외빈의 복식

의궤	의식	착장자	복식
『(무신)진찬의궤』	통명전진찬의	朝官	黑團領
		儒生	靑衿服
		童蒙	靑衿服
	통명전야진찬의		
	통명전익일회작의	進饌所 堂上	黑團領
		郎廳	黑團領
	통명전익일야연의	進饌所 堂上	黑團領
		郎廳	黑團領

(2) 문헌

백관은 왕실 남성 복장과 마찬가지로 상복을 착용하고 참석하였다. 문무백관의 상복은 사모, 흉배를 부착한 흑단령, 품대, 흑피화로 구성된다. 본 제도는 경국대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1746년 속대전에서 제도를 수정하였으며, 정조대에 이르러서는 흉배 제도 같은 경우 쌍학과 단학, 쌍호와 단호 흉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착된다.

<경국대전 표>

<속대전 표>

<궁중기록화 속 문무백관 모습 사진>

실제 복식 물품의 형태와 구조는 유물과 초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갑자년 진연 시에 종친의 반수로 참여했던 밀창군 이직의 묘에서 출토된 단령으로 18세기 단령의 형태와 구성을 참조할 수 있다.

<유물 사진>

<초상화 사진>

2) 내빈

외명부, 외정명부

(1) 의궤

풍정도감의궤:진풍정의 정명공주 예복

풍정도감의궤:진풍정의 옹주 언급은 있지만 복식 x

풍정도감의궤:진풍정의 외정명부 예복

풍정도감의궤:진풍정의 왕자부인 언급은 있지만 복식은 x.

무신진찬의궤 좌우명부 구예복 / 명부 구예복

<표 12> 의궤에 기록된 의식절차에 따른 내빈의 복식

의궤	의식	착장자	복식
『풍정도감의궤』	진풍정의	정명공주	예복
		옹주	
		외정명부	예복
		왕자부인	
『(무신)진찬의궤』	통명전진찬의	좌우명부	예복
	통명전야진찬의		
	통명전익일회작의	명부	예복
	통명전익일야연의		

풍정도감의궤:계사감결:기사년 1629 인조 7년 12월 25일. 진풍정을 거행할 때 외명부는 종친과 동 서반 공신의 정2품 이상, 삼사 장관들과 육승지 부인들이 입참해야 한다고 하여,¹⁰⁾ 내빈으로 참석하는 외명부의 작위를 남편의 품계로서 짐작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예복'의 종류를 노의, 장삼, 원삼 중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무신진찬의궤:권1:전교:무신년(1848, 헌종 14) 3월 13일. 좌명부 반수 정경부인 윤씨, 우명부 반수 정부인 조씨.

외명부의 모습은 궁중기록화에 그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현전하는 유물 중 유사한 시기에 착용되었던 복식으로 그 모습을 추정한다. 노의는 한 점이 있으며 장삼으로 전해지는 유물은 없고, 원삼은 이에 비해 수량이 풍부한 편이다. 이 중에서 착용자의 신분이 연향례에 참석하였던 외명부의 신분과 같거나 그에 상응하는 신분의 유물로 당시의 모습을 짐작해 본다.

(2) 유물

17~18세기 내외명부 예복으로 참조할만한 복식 유물은 다음과 같다.

사도세자의 딸 청연군주(1754~1821)의 묘에서 출토된 노의로 그 구성과 모양을 볼 수 있고, 이단하(1649~1689)의 부인인 정경부인¹¹⁾의 녹원삼과 갑자년 내연에서 외명부 반수로 참여했던 화순옹주(1720~1758)의 녹원삼¹²⁾으로 당시의 노의, 원삼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노의, 원삼, 원삼 사진>

3. 여관 복식

내명부.

풍정도감의궤:진풍정의 사찬, 상궁, 상식, 상의, 상전, 상침, 수규, 전빈, 전선, 전언, 전찬. 여관의 직무분장에 따른 명칭만을 기록하고 있다. 복식 x

10) 원문

11) 조선시대 외명부 중 문관·무관의 적처에게 내린 정·종1품 작호(爵號)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9917>)

12)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무신진찬의궤 권3 의위. 내진찬시시위각차비. 계청상궁, 전도상궁, 도집사, 부집사, 상침, 전언, 사찬, 찬홀, 전찬, 전등여관 어유미, 흑사원삼삼색연광수, 리남색상, 표남사상, 남색금수대, 홍색온혜.

시위, 찬청, 승인, 전인상궁, 상식, 상식, 상찬, 상기, 전식, 상인, 사인, 전빈, 전선 어유미, 초록원삼삼색연광수, 리남색상, 표홍사상, 남색금수대, 홍색온혜.

차비여령 가리마, 초록단의, 리남색상, 표홍상, 백주한삼, 흑혜.

집사, 홀기차비여령 가리마, 초록단의, 리남상, 표홍상, 백주한삼, 흑혜.

악장사창차비여령 화관, 황초삼, 리남상, 표홍상, 홍단금루수대, 오색한삼, 초록혜.

정재의장봉지여령 가리마, 초록단의, 리남상, 표홍상, 백주한삼, 초록혜.

문외의장봉지비자 가리마, 초록단의, 남색상, 백주한삼, 흑혜.

4. 공연자 복식

연향 참가자 중 악공과 여령의 복식에 대해서는 그 복식 명칭과 재료 및 소요량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1) 악공

풍정도감의궤에서는 구체적인 악공 복식에 대해 언급 없음.

2) 여령

풍정도감의궤:계사감결:경오년 1630 인조 8년 3월 초10일. 기생이 착용할 보로 73건과 처용 다섯이 두를 금대에 대한 보수를 지시.

풍정도감의궤:계사감결:경오년 1630 인조 8년 3월 12일. 구체적인 참여자 명단은 없으나 의장을 번들 가의녀가 170여명에 이르러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풍정도감의궤:정재색:경오년 1630 인조 8년 정월 일. 기생 수화 83개. 동기 수화 2개. 처용 5건¹³⁾과 가면 5부에 들어가는 재료를 상세히 서술.

13)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는 언급이 없고, 재료와 소요량만 작성하고 있다.

풍정도감의궤:정재색:경오년 1630 인조 8년 2월 초9일. 기생 관복 73건 중에 23건은 색이 바랬으므로 다시 갖추도록 지시하였고, 보로 73건 중 10건이 매우 더러워 새로 만든 관복과 함께 착용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이 또한 물자를 다시 지급하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동기 관복 2건, 수사지(수사지) 70건, 수화 90건을 새로 만들도록 하였다.

풍정도감의궤:정재색:경오년 1630 인조 8년 3월 초6일. 9가지의 정재가 낙점된다. 헌선도, 수연장, 금척, 봉래의, 연화대, 포구락, 향발, 무고, 처용무이다. 각 정재 복식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수화, 보로, 수사지 등의 명칭은 악학궤범 여기복식에 나타나 있고, 처용복식 또한 기록하고 있어, 풍정도감의궤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여기의 복식 구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풍정도감의궤:정재색:경오년 1630 인조 8년 3월 18일. 처용기녀 5명이 착용하는 백피초혜는 채색단의와 어울리지 않고, 동기 2명의 단혜는 그들이 가난하여 갖추 수 없으므로 여기 7명에게 당혜 한 부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즉, 풍정도감의궤를 통해 알 수 있는 복식 정보로는 1630년 풍정의에 착용된 여령 복식의 종류는 처용복식의 가면과 허리띠인 금대, 그리고 기녀 복식인 단의, 보로, 수사지, 당혜가 있고, 머리에 장식한 수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복장이나 복식 구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무신진찬의궤 권1 이문. 정미년(1847, 헌종 13) 11월 21일. 본 진찬 때, 각 차비여령을 경기(京妓)로 배정하기에는 그 수가 적으므로 각 해당 읍에 공문을 보내 기녀를 차출하였다. 경상도 26명(경주와 안동에서 처용무를 잘 추는 자 6명 포함), 평안도 30명, 강원도 8명 충청도 6명, 황해도 10명, 전라도 20명. 총 100명이다.

무신진찬의궤 권1 이문. 무신년(1848, 헌종 14) 정월 13일. 순옥(강릉)--> 부상(내관. 무신년 정월 17일)

무신진찬의궤 권1 내관. 정미년 12월 19일. 선유락 동기 녹주-기주(평양), 금홍-연옥(성천)

무신년 정월 초2일. 금선-윤희(강원도)

무신년 정월 17일. 신매(양양), 금이(울진), 구강선(고성)

무신진찬의궤 권2 품목. 무신년 정월 18일. 이번 진찬 때 무고여령이 입을 복식. 기축년의 예에 따르면 청, 적, 백, 유록색의 4색 옷 각 하나씩이고, 악학궤범 도식에

는 4색 옷이 각 1쌍씩. 이번엔 어떻게? => 악학궤범 대로 하라. => 무고 여령 8명
에게 각각 4색의 초 17자 지급 시행.

정재여령 66명 복식. 관, 꽃, 상의 황초 17척, 상 홍초 9척 5촌, 대 홍공단 길이
7척 너비 4촌, 부금감 금박 1속, 한삼 오색초 각 길이 1척 너비 2촌

악학궤범

5. 기타 관원 복식

무신진찬의궤 권2 감결. 무신년(1848, 현종 14) 3월 초9일. 내숙설소 가자군 200
명. 청의, 청건 각 200건 진배할 것.

IV. 시맨틱 데이터 편찬을 위한 모델 설계

1. 시맨틱 데이터 모델링

의궤에 기록된 사실 정보

의궤의 정보들과 연결될 다른 문헌들, 기록화, 유물 등과 같은 문맥 정보

2. 온톨로지 설계

1) 클래스(Class) · 속성(Attribute) 설계

- 의궤(Uigwe)

<표 13> 의궤(Uigwe) 클래스의 속성 및 항목 관련 노드 예시

Attribute	Description	Sample
id	식별자	무신진찬의궤
name	대표명	무신진찬의궤
korName	한글명	무신진찬의궤
hanjaName	한자 표기	戊申進饌儀軌
Volume	권	
publicationYear	편찬 연도	1848
eventYear	행사 연도	1848
korEraEventYear	행사 연도의 연호	헌종 14년
hanjaEraEventYear	행사 연도의 연호 한자 표기	憲宗 14年

eventType	행사 종류	진찬
-----------	-------	----

- 연향(RoyalBanquet)

<표 14> 연향(RoyalBanquet) 클래스의 속성 및 항목 관련 노드 예시

Attribute	Description	Sample
id	식별자	무신년_진찬
name	대표명	무신년 진찬
korName	한글명	무신년 진찬
hanjaName	한자 표기	戊申年 進饌
eventYear	행사 연도	1848
korEra EventYear	행사 연도의 연호	헌종 14년
hanjaEra EventYear	행사 연도의 연호 한자 표기	憲宗 14年
eventType	행사 종류	진찬

- 연회(BanquetSession)

<표 15> 연회(BanquetSession) 클래스의 속성 및 항목 관련 노드 예시

Attribute	Description	Sample
id	식별자	1848R_통명전진찬
name	대표명	통명전진찬
korName	한글명	통명전진찬
hanjaName	한자 표기	通明殿進饌
eventYear	행사 연도	1848

korEra EventYear	행사 연도의 연호	헌종 14년
hanjaEra EventYear	행사 연도의 연호 한자 표기	憲宗 14年
eventDate	행사 날짜	18480317
sessionType	연회 종류	정일진연

- 인물(Actor)

<표 16> 인물(Actor) 클래스의 속성 및 항목 관련 노드 예시

Attribute	Description	Sample
id	식별자	조선_헌종
name	대표명	헌종
korName	한글명	헌종
hanjaName	한자 표기	憲宗
sex	성별	남
birthYear	생년	1827
deathYear	몰년	1849
type	인물군	왕실인물

- 정재(Jeongjae)

<표 17> 정재(Jeongjae) 클래스의 속성 및 항목 관련 노드 예시

Attribute	Description	Sample
id	식별자	가인전목단
name	대표명	가인전목단
korName	한글명	가인전목단

hanjaName	한자 표기	佳人剪牧丹
jeongjaeType	정재 종류	향악정재

- 정재역할(PerformanceRole)

<표 18> 정재역할(PerformanceRole) 클래스의 속성 및 항목 관련 노드 예시

Attribute	Description	Sample
id	식별자	선유락_집사
name	대표명	선유락 집사
korName	한글명	집사
hanjaName	한자 표기	執事

- 복장(Attire)

<표 19> 복장(Attire) 클래스의 속성 및 항목 관련 노드 예시

Attribute	Description	Sample
id	식별자	선유락_집사_여령복
name	대표명	선유락 집사 여령복
korName	한글명	선유락 집사 여령복
hanjaName	한자 표기	船遊樂 執事 女伶服

- 복식(Clothing)

<표 20> 복식(Clothing) 클래스의 속성 및 항목 관련 노드 예시

Attribute	Description	Sample
-----------	-------------	--------

id	식별자	남사철릭
name	대표명	남사철릭
korName	한글명	남사철릭
hanjaName	한자 표기	藍紗貼裏

- 복식 구성 요소(ClothingSubPart)

<표 21> 복식 구성 요소(ClothingSubPart) 클래스의 속성 및 항목 관련 노드 예시

Attribute	Description	Sample
id	식별자	동정
name	대표명	동정
korName	한글명	동정
hanjaName	한자 표기	同領

- 재료(Material)

<표 22> 재료(Material) 클래스의 속성 및 항목 관련 노드 예시

Attribute	Description	Sample
id	식별자	남운문갑사
name	대표명	남운문갑사
korName	한글명	남운문갑사
hanjaName	한자 표기	藍雲紋甲紗

2) 관계어(Object Property) 설계

<표 23> 관계어 목록

Relation	Domain	Range
hasSession 연향A는 연회B로 구성되다	RoyalBanquet	BanquetSession
hasPerformance 연회A에 정재B가 행해지다	BanquetSession	Jeongjae
hasRole A는 B역할로 구성되다	Jeongjae	PerformanceRole
isAssignedTo A역할은 B에게 배정되다	PerformanceRole	Actor
wears A는 B를 입는다	PerformanceRole	Attire
	PerformanceRole	Clothing
	Actor	Attire
	Actor	Clothing
hasPart A는 B로 구성되다	Attire	Clothing
include A는 B를 포함한다	Attire	Clothing
consistsOf A는 B로 구성되다	Clothing	ClothingSubPart
madeOf A는 B로 제작되다	Clothing	Material
	ClothingSubPart	Material
hasName A에는 이칭B가 있다	Clothing	Term
documents A는 B를 문서화하다	Uigwe	RoyalBanquet
isMentionedIn A가 B에 언급되다	Clothing	Text
isDepictedIn	Clothing	Illustration

A는 B에 묘사되어 있다	Clothing	Record
participatesIn A가 B에 참여하다	Actor	RoyalBanquet
	Actor	BanquetSession
isHeldFor A는 B를 위해 개최되었다	RoyalBanquet	Actor
isHeldAt A는 B에서 개최되었다	RoyalBanquet	Place

【참고문헌】

1. 원전

『豊呈都監儀軌』	『國朝五禮儀』	『』
『己巳進表裏進饌儀軌』	『經國大典』	『』
『(戊子)進爵儀軌』	『』	『』
『(戊申)進饌儀軌』	『』	『』
『(丁亥)進饌儀軌』	『』	『』

2. 단행본

- 국립고궁박물관 엮음, 『조선 궁중의 잔치, 연향』, 글항아리, 2013.
- 김경실, 『(궁중 연회와 무용)조선시대의 궁중진연 복식』, 경춘사, 2003.
- 김소현, 『조선왕실 여인들의 복식』, 민속원, 2017.
- 김종수, 『(의궤로 본) 조선시대 궁중연향 문화』, 민속원, 2022.
-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의 본질과 여악제도의 변천』, 민속원, 2018.
- 김 현,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
- 김현, 임영상, 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6.
-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옛 그림에 담긴 조선 왕실의 특별한 순간들』, 혜화111 7, 2024.
- 서인화, 박정혜, 주디 반 자일, 『조선시대 진연 진찬 진하병풍』, 국립국악원, 2000.
- 송방송, 고방자 외역, 『국역 풍정도감의궤』, 민속원, 1999.
- 안태옥, 『궁중연향도의 탄생 : 조선후기 연향 기록화와 양식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 민속원, 2014.
- 이경미, 『제복의 탄생 : 대한제국 서구식 문관대례복의 성립과 변천』, 민속원, 2012.
- 이미선 역주, 『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의 혼례식 풍경을 담다 : 譯註 慶嬪嘉禮時嘉禮廳 膳錄』, 민속원, 2020.
- 이민주,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 조선의 왕실복식』,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 이정희, 『근대식 연회의 탄생 : 대한제국 근대식 연회의 성립과 공연문화사적 의의』, 민속원, 2014.

한복려, 이효지, 정길자, 『고종 정해년 진찬의궤 : 조대비 만경전 팔순잔치』,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9.

전통예술원(편), 『국역 헌종무신진찬의궤 : 卷首·卷一』, 민속원, 2004.

전통예술원(편), 『국역 헌종무신진찬의궤 : 卷二』, 민속원, 2005.

전통예술원(편), 『국역 헌종무신진찬의궤 : 卷三』, 민속원, 2007.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조선 후기 궁중연향문화. 권1』, 민속원, 2003.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조선 후기 궁중연향문화. 권2』, 민속원, 2005.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조선 후기 궁중연향문화. 권3』, 민속원, 2005.

3. 학술논문

김경실, 「조선시대 연화대무 동기복식 고증 및 재현」, 『복식』, 제52권 6호, 한국복식학회, 2002, 1~13쪽.

김경실, 유송옥, 「헌종왕후 칠순 진찬 10 곡도병과 신축진찬의궤에 나타난 복식연구」, 『服飾(복식)』, 제32권, 한국복식학회, 1997, 31~43쪽.

김영희, 「국립국악원의 정재 전승양상 - 정기공연을 중심으로 -」, 『국악원논문집』, 제27집, 국립국악원, 2013, 59~74쪽.

김 현, 「디지털 인문학과 고문헌 자료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5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13~38쪽.

김 현, 「유교문화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마스터플랜 연구』, 국학진흥원, 2020, 1~42쪽.

김 현, 「디지털 시대, 인문학 활동의 디지털 전환 - 한국의 사례: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 『한중인문정책교류포럼』, 2023.

김 현, 「디지털 큐레이션 :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인문학 교육」, 『디지털인문학』, 창간호, 2024, 4~33쪽.

김희재, 최희수, 「한류3.0 시대 속 궁중문화를 활용한 축제에 관하여 -제 2회 궁중문화축전을 중심으로-」, 『2016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2016년 1월,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6, 285~289쪽.

김희조, 이형용, 「한국 문화콘텐츠 만족도가 한국산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미치는 영향」, 『2025 한국통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2025권 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25, 169~173쪽.

박가영, 「『순조무자진찬의궤』에 나타난 궁중무용복식의 고증 및 디지털콘텐츠화」, 『한복문화』, 13권 1호, 한복문화학회, 2010, 103~120쪽..

- 박가영, 「궁중정재복식에 사용된 한삼의 변천」, 『국악원논문집』, 34권 -호, 국립국악원, 2016, 49~68쪽.
- 박지원, 「조선시대 의녀의 다양한 역할과 복식 연구 - 의궤의 진찬도와 반차도를 중심으로 -」, 『한국 복식』, 52권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24, 109~128쪽.
- 서동신, 「디지털 인문학 교육·연구를 위한 시스템 환경」, 『석당논총』, 제89집권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4, 195~229쪽.
- 손선숙, 「響鈴舞 呈才圖 研究 - 『進爵儀軌』, 『進饌儀軌』, 『進宴儀軌』를 중심으로 -」, 『한국음악사학보』, 38호, 한국음악사학회, 2007, 79~106쪽.
- 이민정, 이희정, 이연, 김은선, 한수경, 김지은, 최봄이, 장유진, 「CLO를 활용한 1848 무신년 진찬 정재여령의 가상 의상 재현 연구」, 『한복문화』, 27권 1호, 한복문화학회, 2024, 97~122쪽.
- 이은주, 「1743년 영조 오순 어연례 참여자의 복식 고증」, 『한복문화』, 11권 2호, 한복문화학회, 2008, 75~90쪽.
- 이은주, 이경희, 「1829년 〈명정전진찬도〉의 정재차비(呈才差備) 복식 연구」, 『한복문화』, 19권 4호, 한복문화학회, 2016, 151~169쪽.
- 이은주, 이경희, 「1829년 자경전 진찬에 참여한 차비(差備)의 역할과 복식 유형」, 『한복문화』, 20권 3호, 한복문화학회, 2017, 127~148쪽.
- 이은주, 이경희, 「1829년 자경전 진찬에 참여한 왕실 구성원과 내외빈(內外賓)의 복식 연구」, 『한복문화』, 20권 2호, 한복문화학회, 2017, 61~80쪽.
- 장사훈, 「악복과 무복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 특히 악학궤범과 각종 진연의궤를 중심으로 -」, 『동양음악(구 민족음악학)』, 7집권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85, 1~31쪽.
- 조경아, 「대한제국기의 음악 : 대한제국기 연향에서 정재 준비와 공연의 변모」, 『한국음악사학보』, 45권 0호, 한국음악사학회, 2010, 107~154쪽.
- 진덕순, 이은주, 「의궤를 통해 본 궁중 검기무 복식」, 『국악원논문집』, 37호, 국립국악원, 2018, 353~388쪽.
- 최미희, 조효순, 「조선궁중무용 복식 연구(Ⅰ)-光武 6年 呈才 服飾을 중심으로-」, 『한복문화』, 1권 2호, 한복문화학회, 1998, 185~197쪽.
- 최윤희, 이은주, 「조선후기 궁중 무고(舞鼓) 여령복식에 관한 연구」, 『국학연구』, -권 제49집호, 한국국학진흥원, 2022, 295~343쪽.
- 최윤희, 이은주, 「조선후기 궁중 선유락 복식 연구」, 『국악원논문집』, 48호, 국립국악원, 2023, 305~335쪽.

4. 학위논문

- 강민정, 「朝鮮時代 宮中呈才에 나타난 童妓服飾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강민정, 「헌선도의 변천 양상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강혜원, 「한국고고학사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모델 설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 공유화, 「춘앵전 무보의 변천 양상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2015.
- 김경실, 「朝鮮王朝 宮中進宴儀軌에 나타난 服飾의 造形美」,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민정, 「검무(劍舞)의 표현양태에 나타난 차별적 요인 : 궁중검무와 통영검무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 김바로, 「제도와 인사의 관계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 근대 학교 자료(1895~1910)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김영선, 「문화유산 활용 3D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고증연구 : 미국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 소장 《평양감사향연도(平壤監司饗宴圖)》를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 김지명, 「기록문화유산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김지선, 「데이터로 읽는 근대 백화점 : 1930년대 종로 화신백화점 데이터 큐레이션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5.
- 김지연, 「朝鮮時代 女性 禮冠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지영, 「朝鮮時代 進宴儀軌類 呈才服飾에 나타난 織物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현승,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복식 고증과 디지털 콘텐츠화」,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김현정, 「高宗 辛丑進饌·進宴儀軌에 나타난 服飾 比較 研究」,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남미화, 「朝鮮後期 記錄畫에 나타난 劍器舞 服飾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류인태, 「데이터로 읽는 17세기 재지사족의 일상 : 『지암일기(1692~1699)』 데이터베이스 편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박은미, 「한삼에 관한 고찰 : 궁중정재에 나타난 한삼의 의미」, 대전대학교 문화예술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지웅, 「『악학궤범』과 『정재무도홀기』를 기반으로 재현된 아박무의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백미진, 「佳人剪牧丹의 역사적 전개와 연행양상 고찰」,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서소리, 「한국 불교기록문화유산의 지식정보 아카이브 구축 연구 : 『범해선사유고』의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5.
- 서소리, 「문화유산 지식 정보 데이터 모델 연구 : 불탑 지식 정보망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송가영, 「문헌으로 본 조선 후기 궁중연향 처용무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 양선희, 「정재의 의물(儀物)과 무구(舞具)에 대한 미적 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오혜경, 「조선시대 舞童服飾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유미자, 「한국과 일본의 학춤 비교 연구 : 韓國 宮中 鶴舞와 日本 京都 鷺舞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유지수, 「복식유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개선방안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 윤은영, 「궁중정재 춘앵전(春鶯) 복식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수민, 「1929년 조선박람회의 재현을 위한 메타아카이브 구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이윤서, 「한복 유물 데이터 아카이브를 위한 DB 설계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5.
- 이혜경,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朝鮮時代 宮中行事圖 색채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3.
- 이희정, 「조선후기 궁중 정재(呈才) 여령(女伶)의 황초삼(黃 초삼)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 장민하, 「숙종조 기로연의 궁중무용 복원 사례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정영란, 「『受爵儀軌』에 나타난 儀禮와 服飾 연구 : 佾舞服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정주영, 「1970년대 소극장 연극 시맨틱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 1975년 에저포창

- 고극장, 1976-1979년 삼일로창고극장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정효민, 「연백복지무(演百福之舞)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조미라, 「조선후기 순조대 궁중연향 복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조정임, 「春鶯전服飾考」,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채진영, 「한국전통무용복의 문헌적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최나리, 「조선후기 향발무 연행의 변천 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 최미희, 「光武 6년(1902) 進宴儀軌에 나타난 모才服飾」,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최윤희, 「조선후기 여령정재 복식과 무구 연구」, 국립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 최윤희, 「조선시대 궁중검기무복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최인숙, 「궁중 연향(宴享) 의궤(儀軌)에 나타난 유소(流蘇) 연구 : 정조조(正祖朝) 이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트와이닝 린지 다이아나, 「해외 한국학 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유산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 한수경, 「해평윤씨(1660~1701년) 습의(襲衣) 원삼(圓衫) 일습(一襲) 복제품 제작을 통한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5.

5. 기타(강의자료, 연구결과보고서, 보도자료 등)

- 김 현, '디지털 큐레이션: 디지털 인문학의 실천 방법', 2024년 한국학대학원 「인문정보학입문」 강의 자료 ([http://dh.aks.ac.kr/~tutor/Documents/PDF/2024/김현-2024-디지털큐레이션\(01\).pdf](http://dh.aks.ac.kr/~tutor/Documents/PDF/2024/김현-2024-디지털큐레이션(01).pdf))
- 김 현, '디지털 큐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와 기술', 2024년 한국학대학원 「인문정보학입문」 강의 자료 ([http://dh.aks.ac.kr/~tutor/Documents/PDF/2024/김현-2024-디지털큐레이션\(02\).pdf](http://dh.aks.ac.kr/~tutor/Documents/PDF/2024/김현-2024-디지털큐레이션(02).pdf))
-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시작」,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2012.01.31. (<https://www.museum.go.kr/MUSEUM/contents/M0701040000.do?schM=view&catCustomType=post&catId=93&ar>)

cid=4004)

박가영, 「『순조무자진작의궤』에 나타난 궁중무용복식의 고증 및 디지털콘텐츠화」, 한국연구재단 연구결과보고서, 2009.

6. 웹사이트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https://www.gogung.go.kr>)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https://www.overseaschf.or.kr/okchf/index.do>)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main>)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https://www.museum.go.kr/uigwe>)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 (<https://jsg.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위키 (<https://dh.aks.ac.kr/sillokwiki>)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기록유산 Encyves (<https://dh.aks.ac.kr/Encyves/wiki>)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양도성 타임머신 (<https://dh.aks.ac.kr/hanyang2/wiki>)